

2024학년도 중등 교육 임용시험 대비

단기합격을 위한 월비스 임용

GUIDE BOOK

허역, 이웅재, 정인홍, 김현중
전공일반사회



월비스 임용고시학원

목 차

- 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소개
- I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연간 강의계획
- III. 사회과교육론 수험전략
- IV. 사회문화 수험전략
- V. 정치 수험전략
- VI. 경제학 수험전략
- VII. 법학 수험전략

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소개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허역(경제), 김현중(정치), 이웅재(사회문화, 사회과교육론), 정인홍(법) 등 각 파트를 전담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2000년 허역 선생님 혼자 중등임용시험 일반사회과 전공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등임용시험 일반사회과는 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과교육론,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등 5개 분야가 성격과 접근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1인 강사의 통합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과목별 전공 강사의 팀 티칭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만의 집중반 형식의 강의를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적해 왔습니다. 임용 수험 시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강의해 온 유일한 사회과 전공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은 일반사회과 예비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임용고시 사회(<http://cafe.daum.net/imyongsaho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 외의 과목 질문은 임용고시 사회(<http://cafe.daum.net/imyongsahoi>)에서 받고 있으며, 경제 과목 질문은 월비스 홈페이지 '질답 게시판'에서 받고 있습니다.

II. 월비스 임용 일반사회팀 연간 강의계획

시기	강좌명	내용 및 특징	대상
1~4월 (16주)	1~2월 사회과 교육론 집중반(8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반 체제를 처음 도입하여 다년간의 노하우가 집적된 일반사회 팀만의 독보적 강의 •단원별 주요 내용 정리 + 기출문제 분석 + 출제 경향 분석 및 예측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내용까지 다루는 일반사회 영역별 단과반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수험생
	1~2월 경제 집중반(8주)		
	1~3월 법 집중반(12주)		
	3~4월 사회문화 집중반(8주)		
	3~4월 정치 집중반(8주)		
5~7월 (12주)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임용 시험의 주요 주제를 단원별로 짚어보는 강의 •영역별 예상 문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다 실천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용 시험의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초보 수험생 •집중반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출 중심으로 복습하고자 하는 수험생 •수험 준비의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
8~9월 (6주)	4인 4색반	경제	과목별 주제를 정하여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경제]기출에 의한 기출을 위한 반복+보충강의
		법	
		정치	
		사회문화	
		사회교육론	
9~11월 (8주)	실전 모의고사 및 핵심 내용 정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전과 유사한 형식의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마무리 + 영역별 최종 마무리 핵심 내용 정리 	

* 연간 강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사회과교육론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사회과 교육론은 올해 7문항(23점 추정)이 출제되어 작년과 문항 수, 배점에 있어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배점 상으로 +1~2점 추정).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일명 모차책(동문사) 중심의 출제 경향도 여전하다 할 수 있다. 경제 영역과 혼합된 문제가 1문제 출제된 점이 눈에 띄나 형식상 한 문제로 묶여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따로 묻고 있는 문제이므로 사실상으로는 출제 방식이 바뀐 것은 없다.

출제 경향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에 기본 수험서 내용과 기출 문제 영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본적 공부 방향에도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험서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을 점검해 두는 공부가 필요하다.

사회과교육론은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시험 준비하기는 비교적 용이한 과목이다. 그 이유는

- ① 모경환·차경수 공저 "사회과 교육"[제3판](동문사)라는 특정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 ② 기출 시험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공부 방법

- (1) 기본 수험서를 보다 꼼꼼하게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기본 수험서의 내용을 조합하거나 그대로 옮기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세심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 (2) 기출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둔다. 사회과 교육론은 한정된 텍스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다. 따라서 기출된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여러 번 출제된 주제들에 방점을 찍고 그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3. 주요 수험도서

- (1) 모경환·차경수 "사회과 교육"[제3판] (동문사) - 필수
- (2)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과학사) - 참고
- (3) 김영석 "사회과교육론" [2판] (교육과학사) - 참고
- (4) 강대현 "사회과교육론" (동문사) - 참고
- (5)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교육과학사) - 참고

Ⅳ. 사회문화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사회문화는 5문항(16점)으로 문항 수와 배점이 작년과 동일했다. 4점짜리 3문제는 각각 사회학 파트 1문제 (뒤르켐), 사회조사방법론 파트 1문제(양적 연구사례), 문화인류학 파트(문화 이해의 태도)가 출제되었고, 2점짜리 단답형은 사회학 파트에서 2문제(미드 사회화관련 개념, 집합행동이론)이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돌발적인 주제의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고, 모든 문제가 출제될만하다고 보이는 수험 범위 안에서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다.

2. 공부 방법

(1) 교과서 내용의 주요 주제를 빠짐없이 점검, 정리한다.

: 임용 준비의 '기본'이다. 교과서의 주요 주제에 대한 내용 파악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사회문화는 다른 과목에 비해 특히 교과내용과의 연계성이 큰 주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2) 임용 시험의 빈출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정리한다.

: 사회문화는 참고해야 할 개론서가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조사방법론 등 여러 권이다. 따라서 교과서 이외 범위에서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럴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출문제이다. 기출된 주제 중심으로 개론서를 읽어나간다면 분량에 대한 부담은 한결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사회학회의 '사회학'은 반드시 보아야 할 필수 개론서이긴 하지만 그 방대한 모든 내용을 섭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출된 파트를 점검하다 보면 의외로 아주 한정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인류학 파트나 사회조사방법론 파트의 필수 서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식 시절의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주관식 전환 후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영역의 확장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요 개론서에서 새롭게 출제 가능성 있는 영역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3. 주요 수험도서

- (1) 사회학 : 비판적 사회읽기 - 비판사회학회 - 한울아카데미 - 필수
- (2) 사회학의 이해 (제2판)- 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 다산출판사 - 참고
- (3) 사회조사분석 제4판 - 홍두승 . 설동훈 - 다산출판사 - 필수
- (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 노성호 · 구정화 · 김상원 - 박영사 - 필수
- (5) 문화 인류학 -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필수
- (6) 『민족, 문화, 인간 : 인류학의 창조』-김용환 -강원대학교 출판부 - 필수
- (7) 사회문화 교과서, 수능 · 평가원 기출문제

V. 정치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1) 출제 영역 분석

- ① 정치사상: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 비교(14), 공동체주의(15), 롤스의 정의론(16), 루소(17), 루소/공리주의/숙의민주주의(23)
- ② 정치과정: 양원제(14), 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14, 17), 정당제도(14), 정당-립셋과 로칸의 군열 구조 이론(15), 평등선거원칙(16), 선거제도와 투표율/투표의 역설(16), 단순다수제와 절대다수제 + 두베르제 명제(18),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19), 정당의 역사적 발전(19), 공정한 선거제도/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19),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20),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의 비교 및 비례대표제(2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2), 선거구제와 지역주의(23)
- ③ 민주주의: 국민투표제(14), 다원주의(17), 숙의민주주의(18), 권력분립 견제수단(18), 직접 민주주의 요소(19),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제(20)
- ④ 정부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문제점(16), 이원정부제(17),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따른 정부형태(19),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 제도에 따른 정국 상황 및 의회의 우월성 확보를 통한 책임 정치 구현 여부(21), 대통령제에서의 정국 상황(22)
- ⑤ 정치발전: 헌팅턴의 정치발전이론(15)
- ⑥ 국제정치: 주권평등원칙(14), 오건스키의 세력전이이론(15), 비정부기구의 평가지표(17),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및 안보딜레마와 민주평화론(18), 집단안보와 신현실주의(20), 국제기구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23)
- ⑦ 정치권력론: 권력과 권위(18), 정치적 권위의 유형과 제한정부 및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정부 역할(21),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22)

(2) 정치학 출제의 특징

- ① 주요 출제 포인트였던 정치과정영역, 사회계약설, 국제정치 관점 등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시험 역시 주요 출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② 2015년 시험의 국제정치 출제 영역인 세력전이 이론은 일반적인 개론서에는 다루지 않는 주제였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면 친숙한 이론은 아니었으나 답안으로 제시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주어진 제시문 속에 모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황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제시문 분석만이라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었던 문제였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③ 2017년에 출제된 비정부기구의 평가기준에 관한 기입형 문제의 경우 문제의 출전과 타당성을 의심해볼 정도로 일반적 개론서와 각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후의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이 문항으로 인해 정치학의 학습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려 하지 말고, 선거제도, 정부형태, 국제정치 관점 등의 주요 주제를 잘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2. 공부 방법

① 교과 기본 내용 정리

고등 교과 정치와 법 과목 기본 내용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임용 시험 준비의 기초이자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본적 교과 내용이 그대로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교과 내용을 실제 교단에서 강의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후 수험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학적 지식을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고, 출전과 출처를 따져나갈 수 있는 학습의 뼈대를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대 수능 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기출문제 분석

정치학은 일단 학습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오랜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내용의 방대함이 수험자로 하여금 방향의 설정마저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용시험에서의 기출문제이다.

일단,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측의 입장에서 정치학의 주요 주제와 출제 포인트라고 바라보는 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요 개론서 정리

수능 형태의 기본 교과적 내용으로만 한정되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 개론 수준의 지식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기출된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학습이 개론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중요 주제이지만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예상과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수험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④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

서답형 시험은 주요 기입형과 서술형의 형태로 출제된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익숙한 형태의 시험인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형식임을 우선 숙지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은 문장을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각종 이론과 개념 학습시 문장별로 세밀한 독해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답형 형식은 주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이를 직접 기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평소 학습 시 난해한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탈피하여, 큰 줄기를 잡고 이론과 원리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 자신이 직접 쓸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3. 추천도서

①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 공저 - 박영사

②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 고경민 - 인간사랑

Ⅵ. 경제학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또는 강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출제영역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출제였습니다. 결국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중심으로 대비하게 되면, 출제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성향이 담겨, 일반적인 예상의 정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한, 답안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출제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올해도 미시경제 부분에서만 2문항(소득분배론, 외부효과), 거시경제에서 1문항(국민소득론)이 출제되었고, 국제경제 부분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제구성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국제경제 파트가 출제 주제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각 부분 간의 균형 있는 출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출제였습니다.

2. 출제 문제에 대한 분석

<A형 - 9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10분위분배율은 상이한 소득계층 간에 총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 나라의 전체 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위 가계에서 최상위 가계까지 배열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정렬한 가계들을 10등분하고 등분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로부터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10분위분배율은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을/를 (㉢)(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분위분배율은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진단할 때에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로렌츠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가계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의 소득분배 상태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작성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풀이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 ㉡ : 하위 계층 40% 소득의 누적적 합, ㉢ : 상위 계층 20% 소득의 누적적 합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의 정도가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된다.
- 밑줄 친 ㉢이 작아진다면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술할 것.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의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다.

☞ 평가 :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 및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B형 - 7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은, 오염배출로 인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비용과 오염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오염배출량(E)에 의해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한계피해비용(Marginal Damage Cost, MDC) 함수는 $MDC=3E$ 로 주어져 있다. 오염배출량이 적을 때는 MDC 가 작지만 오염배출량이 증가할수록 피해를 입는 주민 수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MDC 는 커지게 된다. ○○기업이 오염배출량을 줄이려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함수는 $MAC=300-3E$ 로 주어져 있다. 오염배출량 수준이 높고 저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은 손쉽고 저렴한 저감방법을 사용하므로 MAC 가 작다. 하지만 오염배출량을 줄이고 저감량을 늘릴수록 새로운 저감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이유로 MAC 는 커지게 된다.

현재 ㉠○○기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은 채 배출하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오염배출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작성방법>

- 밑줄 친 ㉠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 쓸 것.
- 밑줄 친 ㉠의 경우 □□지역의 피해비용이 얼마인지 쓸 것.
- 밑줄 친 ㉡을 시행할 때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쓰고, 밑줄 친 ㉠의 상황과 비교하여 사회적 총비용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술할 것.

풀이

- 밑줄 친 ㉠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 쓸 것.
⇒ $E=100$
- 밑줄 친 ㉠의 경우 □□지역의 피해비용이 얼마인지 쓸 것.
⇒ $TDC=100 \times 300 \times \frac{1}{2} = 15,000$
- 밑줄 친 ㉡을 시행할 때 오염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쓰고, 밑줄 친 ㉠의 상황과 비교하여 사회적 총비용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술할 것.
⇒ ㉡을 시행하는 경우의 $E=50$, $TDC=100 \times 150 \times \frac{1}{2} = 7,500$ 이 되어, ㉠ 상황과 비교할 때 사회적 총비용은 7,500만큼 감소한다.

평가 : 이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래프를 전제로 하는 출제였습니다. 물론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당연히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이론 정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문항은 기존의 기출문제(1995년, 2017년)에서 전제한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확인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출제였습니다.

<B형 - 8번>

다음은 폐쇄 경제인 갑국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Y = C + I + G$
- $C = \frac{3}{4}(Y - T)$
- $T = tY$
- $t = 0.2, I = G = 80$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 T 는 조세, t 는 소득세율을 나타낸다.)

<작성방법>

- 갑국의 균형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쓸 것.
- 국민소득이 균형일 때 T 가 얼마인지 쓰고, 이때 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서술할 것.
- 갑국 정부가 목표 국민소득 수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G 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할 것.

풀이

- 갑국의 균형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쓸 것.
 $\Rightarrow Y = C + I + G = \frac{3}{4}(Y - 0.2Y) + 80 + 80, 0.4Y = 160, Y = 400$
- 국민소득이 균형일 때 T 가 얼마인지 쓰고, 이때 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서술할 것.
 $\Rightarrow T = tY = 0.2 \times 400 = 80, T = G = 80$ 이 되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 갑국 정부가 목표국민소득(Y_T) 수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G 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서술할 것.
 \Rightarrow 필요한 국민소득 증가분(ΔY)이 $200(= \Delta Y = Y_T - Y = 600 - 400)$ 이고, 정부지출 승수($m = \frac{1}{1 - MPC(1 - t)} = \frac{1}{1 - 0.75(1 - 0.2)} = \frac{1}{1 - 0.6} = \frac{1}{0.4} = 2.5$)가 2.5이므로 정부지출을 80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평가 : 비록 서술형이라는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계산과정을 거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3. 경제학 공부 방법

1) 경제학적 마인드를 키우자!

경제적 선택에 있어서 항상 자원 제약이라는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기초한 선택이 곧 경제학에서 요구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제학적 마인드인 것입니다.

2) 경제이론에 전제된 가정에 유의하자!

경제학자는 끊임없이 모든 경제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현실의 모든 경제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시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단순화 작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경제학자들이 즐겨 전제하는 조건이 그 유명한 "ceteris paribus"인 것입니다.

3) 기본적인 미분법을 반드시 숙지하자!

미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자원 제약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이에 따라 주어진 목표의 최적화를 묻는 것이 미시 경제학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적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바로 미분법입니다. 총함수를 주어진 변수로 1차 미분하면 그것이 한계함수이고, 그 한계함수를 0이 되게 하는 수준에서 총함수의 최적 조건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볼까요.

문제) 어떤 재화의 수량을 X 라 하고 총효용이 $TU = -3X^2 + 120X$ 일 때 한계효용은?

풀이) $MU = \frac{dTU}{dX} = -6X + 120$

위 문제는 총함수와 한계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아주 아주 간단한 미분법만 알면 정답률 100%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만약 위 문제를 총효용이 극대일 때 수량을 구하는 문제로 변형된다면, 그것은 한계효용이 0일 때이므로 $X=20$ 이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그래프와 친해지자!

그래프는 경제이론을 가장 간단히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의 설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프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한 이해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융통성 있는 풀이법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볼까요.

문제) 수요함수가 $Q=100-5P$ 일 때, 독점기업의 총수입이 극대인 가격수준은?

풀이) $Q=100-5P$ 를 변형하면 $P=20-\frac{1}{5}Q$ 이므로,

총수입(TR)= $P \times Q = (20-\frac{1}{5}Q) \times Q = 20Q - \frac{1}{5}Q^2$ 이 되어 한계수입(MR)= $20-\frac{2}{5}Q$ 가 된다. 따라서 총수입이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수입이 0이 되어야 하므로 $Q=50$ 과 $P=10$ 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고지식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그래프와 친한 센스를 발휘하면, 수요함수가 선형함수(직선)로 주어질 때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한계수입=0인 수준에서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인 경우이고, 그것은 곧 중점이므로 $P=10$ 이라는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아도 평소에 그래프와 자주 만나서 안면 좀 더 두기를 바랍니다.

5) 미시가 전제되지 않는 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경제학 교재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경제학 공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미시와 거시가 연구범주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6) 거시 경제학은 역사이다!

극히 기술적인 미시 경제학과 달리 거시 경제학에는 학자들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Smith의 대표적 저술의 제목은 왜 “국부론”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 250년 전의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른 이해를 돕는 지름길입니다.

3. 추천도서

경제 집중반 수업을 위한 본인의 ‘AK 통합 경제학(박영사)’ 외에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 기본서인 ‘현대경제학 원론’(박영사, 김 대식외 2인 공저), ‘경제학 원론’(법문사, 이 준구외 1인 공저) 중 어느 것이든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Ⅶ. 법학 수험전략

1. 출제 경향

(1) 지난 10년간의 출제 경향

지난 10년 동안 법학 문제는 어떤 해는 지나치게 쉽고 어떤 해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일정한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웠었다. 쉽게 출제된 해는 대입수준으로 출제되다가 어려운 해는 개론서를 철저히 공부해도 거의 손도 못 대는 수준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2) 이번 시험(2021년11월 시행된)의 출제경향

이번 시험에서 법은 2점짜리 기입형 2문제(헌법 1문제, 민법 1문제)와 4점짜리 서술형 3문제(헌법 1문제, 민법 1문제, 형법 1문제) 총5문제 16점이 출제되었다. 이 중 민법에서 3점 정도가 난이도가 높았다.

2. 공부 방법

(1)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정독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서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학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법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많다. 더구나 어떤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서점에 가서 법전을 펼쳐들고 읽어보면 마치 외국어를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이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념별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2~3개 정도씩 기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접했을 때 새로운 사례에도 개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3) 공부의 깊이를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해야 한다.

중등임용시험의 기출문제 중 상당 부분이 교과서로 커버가 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만 공부해서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대비에 적합한 개론서가 요구되는데, 예비사회과교사들이 중등임용시험을 대비하면서 곤혹스러운 점 중 하나가 적합한 법학개론서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법학에 관한 전공서적을 통독하거나 판례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법학은 로마시대부터 축적되어온 방대한 이론들이 있고, 해마다 엄청난 양의 판례가 쏟아진다.

법학에 관한 전공서적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이해를 위해서 읽어볼 수는 있어도 통독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판례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필요한 사례로서 이용해야지 판례를 위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3. 추천도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비사회과교사들이 중등임용시험에 적합한 법학개론서는 아직까지는 없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기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읽어야 하는 참고용도서로 다음 책들을 추천한다.

(1) 5종(미래앤, 지학사,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천재교과서 등)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2) 한국인의 법과생활(법무부)



월비스 임용고시학원

대표번호

1544-3169

ssam.willbes.net

1관 노량진 사육신공원 맞은 편 남강타워 5층